

해외 어학 연수 최종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아시아태평양대 학교 말레이시아	연수 기간	2024.01.06~2024.02.03
학과	항공서비스과	학번	2350134
이름	이소희	이메일 주소	sohee0963@naver.com
학업 관련 (연수 기관 설명, 수업방식 및 구성, 해당 기관 서비스, 해당 기관 특징 및 장·단점 등)			
<p>학교를 가자마자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1~6로 나뉩니다. 이 테스트는 reading과 writing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p> <p>수업은 레벨마다 난이도와 수업 방식이 다르지만 저는 레벨4였고 오전 수업은 여자 선생님이었고 듣기와 말하기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듣기 수업은 음성파일을 틀어주시는 것으로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고, 말하기 수업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어떻게 해야하고 주제를 선택해서 팀원 또는 혼자 발표를 준비하여 스피킹 시험을 보았습니다. 오후 수업은 남자 선생님이었고, 주로 에세이 쓰기 수업과 읽기 수업을 했습니다.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 것이고 몇 단락으로 나누어 써야하고 주제에 대한 원인과 영향에 대해 주로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와 유입물로 읽기 수업을 진행 했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p> <p>학교에서 빨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저는 액체세제를 들고 가서 호텔에서 손 빨래를 했기 때문입니다.</p> <p>학교의 식당은 정말 넓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이지만 식당과 가까운 엘리베이터는 항상 사람이 많으니 조금 걸어서 다른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되면 학생들이 많아져서 자리를 잡기 힘들니까 자리를 먼저 잡고 점심 메뉴 찾으러 다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생활 관련(의, 식, 주) 연수 국가의 특징, 주의할 점, 본인의 경험담			
<p>말레이시아에서 파는 한국 소주가 정말 비싸니까 가급적 짠 술 드세요..</p> <p>물가가 싸서 웬만한 브랜드 있는 곳에서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 찾아서 현명한 쇼핑하시길 (자라, H&M 등) 파빌리온 꼭 가세요. 진짜 먹을 거 많고 핫플이고 야시장도 가까워서 매일 파빌리온 간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IIAO IIAO 꼭 꼭 먹고 오기 안 먹으면 안돼요ㅠㅠ)</p> <p>파빌리온 바쿠테도 맛있어요! 하이드라오 휘핑크도 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싸고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p> <p>트윈 타워 지하에 마트 있는데 마트에서 파는 초밥 진짜 맛있고 선물도 거기에서 많이 사니까 둘러보면서 싸게 많이 사세요. 샤넬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 것도 한국보다 8000원~1만원 정도 더 싸니까 생각해보고 구매하세요~</p> <p>*학교에서의 복장 규정이 엄격하니 꼭 카라있는 셔츠나 청바지, 노출되지 않는 옷 챙겨가세요!! 신발도 운동화랑 슬리퍼 크록스 같은 거 챙기면 좋습니다.)</p>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후배에게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정보(준비 절차, 준비물, 비상약, 추천정보, 꿀팁)			
<p>비상약은 종합 감기약, 여자분이면 생리통약, 타이레놀 정도면 충분 / 환전은 한화 5만원 정도면 충분</p> <p>호텔이 많이 추우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조금 두꺼운 옷(바람막이 등) 챙기는 것이 좋음</p> <p>선크림 필수.. 워터파크를 가게 될 수 있으니 워터푸르프 선크림 꼭 챙기기..(많이 탈 거 같거나 탈 수 있음을 예방해서 알로에젤 챙기기 조금이라도)</p> <p>빨래를 손빨래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이소같은 곳에서 액체세제 사가서 빨래하기. 빨래를 하면 건조할 곳이 없어서 빨래줄을 챙기라는 말이 있는데 빨래줄까지는 필요 없고 옷걸이 같은 거 많이 챙겨가거나 간이식으로 빨래 널 수 있는 것 챙기면 좋음. +탈취제</p> <p>위탁 수하물 케리어에 라면, 김치 챙길 수 있으면 챙기시길(저녁 되면 어디 나가서 사 먹지 않는 한 배고파서 힘들) 저녁에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일회용품 제공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으니 나무젓가락 몇 개 챙겨가는 것을 추천</p> <p>아이패드 노트북 둘 다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음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추천(주간 보고서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지만, 학업 관련으로 온라인 수업과 PPT 만들 땐 노트북이 훨씬 편한 것 같음. 그리고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를 사용할 일 거의 없음.)</p> <p>야시장에서 발 마사지 받는 것을 추천함. 극락을 경험할 수 있음.</p> <p>포트딕슨이나 말라카 시간되면 가보는 것을 추천 좋은 경험과 볼 거리 맛있는 것이 많아서 꼭 가봤으면 좋겠음.</p> <p>갈 때 케리어에 너무 많은 짐을 챙겨가면 한국 돌아올 때 수하물 추가해야 할 수 있으니 적당히 챙길 것만 챙겨서 가시길</p>			

기숙사/ 호텔 등



학교 캠퍼스/ 시설



수업 / 강의실 / 카페테리아 등



문화 체험



기타1



기타2

